

복제기술과 디지털 시대의 오리지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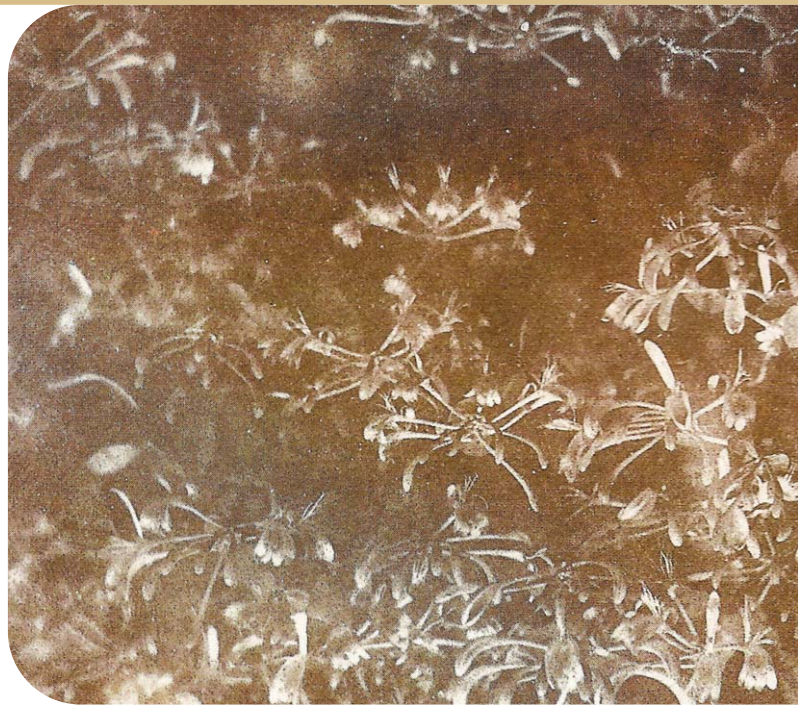
글 | 정현이 _ 한성대학교 회화과 교수 haema@hansung.ac.kr

고대 그리스 이래 서양미술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복제기술'을 개발하는 일이었다. 그리스 사람들은 조각상에 생동감을 주기 위해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골반을 기울여 자연스러운 'S'자를 그리도록 고안한 '콘트라포스(counter-pose)'라는 포즈를 통해 미술사의 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고전기'의 문을 열었다. 뻗뻗하게 벽에 붙어있던 조각상들이 한 다리를 볼썽 내밀고 허리를 틀면서 '꿈틀' 살아난 것이다.

미술적 복제의 염원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리스 신화에는 자신이 조각한 여인상과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온이라는 예술가가 등장하는데, 피그말리온의 애절한 사랑에 감동한 신이 여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한다. 살아난 조각상과 알콩달콩 잘 살았는지 그 다음 이야기는 없지만, 어쨌든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는 예술가들의 오래된 꿈을 반영하고 있다. 예술작품은 세계의 복제를 넘어 생명을 얻음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성된다.

원근법 · 사진 통해 3차원 세계 복제 · 재현

3차원 세계를 2차원의 평면에 재현하는 회화적 복제기술은 조각보다 훨씬 어려웠던지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중세를 지배하던 '신의 시간'이라는 세계관에서 '인간의 시간'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세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일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르네상스의 예술가들은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평면에 옮기는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한 끝에 세계를 마치 눈으로 보듯이 똑같이 평면에 재현할 수 있는 투시



폭스 탈보트, 〈인동덩굴〉, 1840.

기법인 원근법을 발명하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가 화가이자 과학자였고 기술자였으며 사상가였듯이, 르네상스 시대에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간기하학이나 인체해부학, 자연현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필요했다. 파올로 우첼로(1397~1475)는 원근법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화실에서 몰두했다고 하는데, 물감을 화가들이 만들어 쓰던 시대였으니 당시 화가의 화실은 화학실험실을 겸한 연구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캔버스와 유화기법이 처음 발명된 것 역시 초기 르네상스 시대이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서양회화의 가장 위대한 시대, 르네상스 미술이 활짝 꽃피었다.

19세기 초반, 이번에는 수공예에 의지하던 복제기술을 기계적 과정으로 대체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예술적 복제기술과 관련한 또 한번의 혁명, 사진의 발명이 바로 그것이다. 1839년 프랑스에서는 발명가였던 니엡스(1765~1833)와 화가였던 다게르(1787~1851)에 의해서 '다게로타입'이라는 은판사진술이, 그리고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물리학자인 탈보트(1800~1877)에 의해 '칼로타입'이라는 음화사진술이 발명되어 급속히 화가들의 미니어처 초상화를 대체하며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음화사진술은 복수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초기 양초종이필름 인화기술을 말한다.

과학과 예술의 이번 만남은 화가들에게 르네상스 때처럼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다. 우선 초상화를 그려서 세계를 꾸리던 많은 화가들이 직업을 잃거나 사진사로 전업을 해야만 했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술가들의 '피그말리온의 꿈'이 분열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폭스 탈보트, 〈정물-도자기〉, 1844.

19세기에 발명된 사진술은 르네상스 화가들이 원근법을 통해 확보한 '정확성'과는 다른 차원의 '객관성'을 무기로 전통적인 재현 기술에 도전하였다. 탈보트가 1844년 출판한 첫사진집의 제목이 '자연의 연필' 이었는데, 작가의 주관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자연이 스스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의미였다. 사진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이미지, '마술의 거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사진의 시간성이다. 사진은 과거에 그 곳에 있었으나, 지금 여기에는 부재하는 사건을, 과거의 시간을 증거한다. 그렇기에 미술의 거울인 사진은 마치 그림자와도 같아서 아무리 복제가 완벽해도 생명을 꿈꿀 수 없다. 일련의 화가들은 사진의 무생물성이, 그 과거 시제(죽음)가 그들의 꿈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 사진을 악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디지털 시대엔 단 하나밖에 없는 '원본' 의미 없어

고전 기호학에서는 기호를 상징, 도상, 지표로 나눈다. 상징기호란 우리들의 언어처럼 그 지시 대상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 기호이다. '사과' 혹은 'apple'이라는 글자는 실제의 사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우리가 그 기호로 특정 과일을 지칭하도록 약속한 것일 뿐이다. 이런 관습적 기호가 상징 기호라면 도상기호는 닮음에 근거한 기호이다. 내가 그린 사과 그림은 사과라는 대상에 대한 도상기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번째 지표기호는 대상을 지시하거나 대상과 닿아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사과의 그림자는 사과의 지표기호에 해당한다. 그런데 내가 찍은 사과 사진은 내가 그린 사과 그림보다 진짜 사과를 훨씬 더 정확하게 닮아 있겠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도상기

호가 아니라 지표기호에 해당한다. 왜냐 하면 빛이 대상에 닿아서 만들어진 것이 사진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자연에 대해 연속적이다. 단절이 없다. 바로 이 점이 사진의 객관성을 확보해준다. 사진의 발전과정에서 보도사진의 분야는 특히 사진의 이러한 증거 능력을 바탕으로 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진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표 기호로서의 사진의 객관성, 사진의 사실주의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아날로그 시대의 객관성, 아날로그 시대의 사실주의 이야기이다. 디지털 시대는 이 모든 것을 또 한번 흔들고 있다. 빛이 디지털 입자로 바뀌면서 임의적인 조합은 무한대로 가능해졌다. 정보가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자료의 정리가 더욱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광의의 망 속에서 서로를 반사하고 서로를 공유하면서 정보 개체의 정체성이나 유래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처리 방식이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원본, 혹은 '오리지널' 이라면 디지털 시대에 원본의 의미를 묻는 일은 거의 무의미한 듯하다. 몇 년 전 복제 양돌리가 한참 화제가 되었을 때, 뉴스에서 인간의 복제도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분명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 원본의 마지막 세대일 지도 모를 일이다. ❸



글쓴이는 이화여대 철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뉴욕시립대학원에서 미술이론과 비평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미술문화재단 호암갤러리 선임연구원을 지냈으며, 현재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